

새 출발 2012...함께 행복합시다



“중생의 목소리 들리시나요”

2012년 새해가 밝았다. 늘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새해 첫 햇살에는 희망의 기운이 넘친다. 민중의 서원이 깃든 아의 법당 경주 남산에도 첫 햇살이 드리운다. 신선암마애보살 유희좌상(보물 199호)이 그 햇살에 눈을 뜬다. 천년을 넘겨 한 곳에서 바라본 햇살도 오늘은 새롭다. 중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주기를...

기사 B10·11면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2012년은 간화선풍 진작의 해

경허 스님 열반 ·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1849~1912)와 현대 한국의 대표 선지식이었던 성철 스님(1912~1993)을 기념·선양하는 행사가 2012년 한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집행위원장 주경, 이하 사업회)”는 구랍 29일 수송동 두산위브빌리는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경허 선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천장사 서산부석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 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선찰 답사 형태로 진행된다. 또, 선사화전 및 유물 전시회에서는 경허 선사의 작품뿐만 아니라 선미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스님들의 작품이 초대된다.

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은 “2012년은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조계종 창종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선양사업을 통해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를 재조명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련불교재단(이사장 원택)은 한국불교사의 거목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스님의 생애·사상을 조명해 온데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사장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100년은 20세기 한국 역사와 한국불교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스님의 사상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철 스님이 1981년 1월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며 내린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열반 20여 년인 지금도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문화기행 프로그램은 경허 선사 사 주석·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2012년 신년 특집호 52면 발행

A 종합	2
사홍서원 설문 분석	3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5
다시 듣는 법정 스님 법어-행복의 비결	7·8·9
각종단 신년 법어	11
불교와 정치	12·13
하나의 삶	16·17
스승과 제자 - 재야침 범담	19
현성 스님 · 마가 스님	21
육조 혜능 발자취를 따라	1·2·3
불교계 전망 2012	6·7
B 특집 · 서원의 종교 불교-함께 행복합시다	10·11
사홍서원	13
나의 서원 · 임진년 발원	19
서원의 성지 경주 남산	
불교와 용	
금메달 발원 불자들	

사홍서원 알면서도 기복 53%

본지 신년특집 '사홍서원' 설문조사

불자들은 법회 등 의례 때마다 독송하는 사홍서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마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서원, 보현보살 10행원 등 별원(別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불교가 기복불교라고 오해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많은 불자들이 복을 받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자기수행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불자들 대부분은 각자의 서원을 갖고

있고,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대승적인 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2012년 신년특집 기획 '서원의 종교 불교, 함께 행복합시다'의 일환으로 구랍 10~25일 불자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대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불교가 자기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서원하고 발원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는 268명이 그렇다(89.3%)고 답했다. 사홍서원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학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86명이 '그렇다(62%)' 를, 114명이 '아니다(38%)' 라고 밝혀 신도 기초교리 교육을 강화하거나, 한글 의례 보급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서원, 보현보살 10행원 등 불보살의 서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28%인 84명만이 '알고 있다' 고 답했다.

불보살에 복을 받고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53%인 159명

만이 '그렇다' 고 응답했다. 또, 정진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불보살님께 발원하고 서원을 다짐하느냐는 질문에는 240명(80%)가 '그렇다' 고 답했다.

불자들은 대부분(88%) 서원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 대상은 가족(37%)·자신(30%)·사회(25.5%)·친구 등 이웃(7.5%) 순이었다.

김응철 교수는 “불자들이 이미 성숙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공생

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불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원을 불자 자신에 국한시키지 않고 가족·이웃·사회로 확장시키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 자신의 공덕을 대중에 회향하는 신행 문화가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이 신앙의 귀의처를 넘어 신행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A2 B1·2·3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자비광명이 충만한 한 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壬辰年
謹賀新年

자성과 쇄신 결사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자 승**
중앙총회의장 **보 선** 호계원장 **법 등**
교육원장 **현 응** 포교원장 **지 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